



봄이니까



매일 아침 그날의 컨디션은 침대 위 이불을 정리하면서 체크할 수 있다. 두 팔로 이불을 세차게 들어 올려 한번에 이불이 침대 위로 싹 펼쳐져 떨어지면 최상의 컨디션. 절반도 퍼지지 않은 채 코앞으로 똑 떨어져 버리면 영 기운이 없는 아침인 것이다(참고로 겨울 이불이라 아주 가볍지는 않음). 이렇게 아침부터 이불을 펼치지도 못할 정도로 기력이 없으면 온종일 기운이 없고 의욕도 없어서 하루가 힘들다. 하지만 다행히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은 편이라 두 번쯤 시도하면 이불이 싹 펼쳐진다. 그리고 컨디션이 좋아 아침 운동을 가기 전에 설거지와 배춧값까지 완료하고 집을 나서고 있다. 이 정도면 꽤나 산뜻하고 가벼운 하루를 시작한 셈이다.

공진단이 효과를 발휘한 것인가? 연말연시에 돌발성 난청으로 입원을 하게 되어 공연히 시부모님께 걱정 근심을 안겨드렸는데 아무래도 봄이 허해서 그런 것 같으며 시아버님께서 공진단을 보내주셨다. 공진단은 70대인 부모님께서 드셔야 마땅한데 아직 팔팔해야 할 며느리가 먹자니 굉장히 염치없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것도 부모님 사랑이니까' 하면서 감사히 받았다. 공진단을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인다는 소문도 있던데 나의 경우 혈액 순환이 잘 되는지 확실히 손발이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었다.

요즘 컨디션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봄이 왔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요즘 우리 동네는 벚꽃 천국이다. 올해는 유독 예년보다 빨리 벚꽃 개화 소식을 알렸는데 벚꽃 개화를 기록한 1922년 이후 두 번째로 빨리 피었다고 한다(가장 이른 개화는 재작년인 2021년). 지난 금요일 출장 가는 남편을 따라 제주도도 가기 전까지만 해도 동네 벚꽃 나무에 꽃봉오리만 올라오고 있

었는데 3박 4일 제주에 갔다가 돌아오니 벚꽃이 무더기로 활짝 피어 있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봄이 한창이다.

벚꽃이 활짝 피기 시작하면 팬스레 마음이 설레고 발걸음도 가벼워진다. 흐드러진 벚꽃 길을 걷고 있노라면 "만약 '앤' 이라고 부르실 거면 E를 붙인 앤(Anne)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말하던 감수성이 풍부한 빨간 머리 앤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진다. 동심으로 돌아가 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강충강충 뛰고 싶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꾸 불러내서 만나고 싶기도 하다. 벚꽃이 만발한 요즘 같은 날에는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한 번이라도 더 나가서 두눈에 그리고 내 가슴에 담아두어야만 할 것 같다. 조금만 발품을 팔면 벚꽃들의 향연을 만날 수 있는데 그걸 마다 할 필요가 있을까?

게다가 우리 집 주변에는 벚꽃 명소가 곳곳에 있다. 특히 석촌호수는 해외 관광객이 일부러 찾아올 정도로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로 매해 인산인해를 이루는 통에 벚꽃 시즌에는 오히려 근처에 열선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보다 집에서 가까운 올림픽 공원이나 성내천길(아산병원 쪽방길)도 벚꽃으로 유명하다 보니 굳이 멀리 꽃구경을 나서지 않아도 실컷 벚꽃을 즐길 수 있으니 참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봄을 알리는 벚꽃들의 향연을 즐기는 것은 우리 동네 주민들의 특권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집에는 거의 한 달이나 일찍 벚꽃이 피었다. 송과 돌레길에 아들 이름으로 헌화한 벚꽃 나무에 가지가 꺾여 덜렁거리고 있길래 남편이 집에 가져와 화분에 꽂아 두었는데 우리 베란다 별이 좋

아 2월 말에 벌써 벚꽃이 개화한 것이다. 그렇게 올봄 나의 첫 벚꽃은 하늘에 있는 우리 아들이 선물해 준 것만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았다. 봄이 되면 알아서 피고 지는 꽃에게 이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할 일인가 싶지만 눈앞에 있어야 할 아들이 먼저 하늘로 가고 나면 꽃, 별, 바람, 구름마저 특별하게 느껴지는 법이니까.....

아름다운 봄이다. 이 좋은 봄날,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는 순간마저도 아름다운 벚꽃은 마치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공진단처럼 내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인가 요즘 매일 아침 이불이 한결 가볍게 느껴진다. 봄이니까..... 덥지도 춥지도 않고 따사로운 햇살에 바람마저 향기로운 봄이니까 매일 아침 힘 있게 이불을 펼칠 수 있는 봄이니까.....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사고(社告)

필자와의 파일 교류 오류로 인해 지난주 본보 20면 <지나의 한국 사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아줌마' > 내용 중 누락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온전한 내용은 본보 홈페이지(www.townnewsusa.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무엇이든 맡겨 주십시오.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바이어 보조프로그램 다운페이 & 클로징 코스트

- 01 \$10,000 DOWNPAYMENT ASSISTANCE
- 02 \$7,500 CLOSING COST CREDIT
- 03 GOVERNMENT ASSISTANCE UP TO \$140,000

지금 전화주세요! > 아이비 714.904.1202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VICE PRESIDENT
Member of NAR, CAR, PWR
CalDRE#: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